



함덕해수욕장 막바지 피서객 다시 무더위가 시작된 19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막바지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간첩단 사건’ 국보법 위헌심판 헌재로…

제주지법, 국가보안법 제7조 1·3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책위 “의미있는 결정”… 결정 나오기까지 재판 중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진보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와 공안탄압저지및민주주의옹호추진위원회(이하 공안탄압저지추진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또는 소송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을 제청할 수 있고, 제청이 이뤄지면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른바 ‘제주간첩단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강은주·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지난 2023년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다만 강 전 위원장은 투병중임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24년 1월 29일 첫 공판이 이뤄졌고 이들은 현재 모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이 사건 변호인단은 지난 2024년 1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나)목,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올해 4월 재판부가 바뀐 후에 공판 갱신 절차에서 새 재판부를 상대로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선행 판단이 이뤄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이 사건 재판은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결정을 판단하기 위해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했고, 이후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 제청을 인용 결정했다.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에는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공안탄압제주대책위는 이날 환영 입장을 전하며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데 적용된 국가보안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맞는 법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정기자

비자숲힐링센터 특혜 논란… 센터는 반박 공공연대노조 제주본부, 감사위에 조사 청구

제주대학교가 위탁 운영 중인 비자숲힐링센터의 관리자급 직원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본부(이하 노조)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간부에 대한 특혜 및 각종 규정 불이의 변경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비자숲힐링센터(환경성질향에방관리센터)는 제주도가 건립한 공공시설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예방관리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노조는 “A팀장은 취업규칙상 연간 30일로 제한된 병가 규정을 무시하고 44일간 유급 병가를 사용했다”며 “주 4일 근무임에도 주 5일

기준 월급을 받고, 휴직 기간 중에도 편법을 사용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8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센터 인건비 횡령 및 배임 의혹에 대한 조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병가 사용에는 적용 법령의 착오가 있었다면서도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했다. 센터 관계자는 A팀장의 병가 사용과 급여 지급에 대해 “국가공무

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간 60일 이내 병가 사용을 적용했으나 단서조항(30일 이상 병가 사용 시 토요일·공휴일 포함)을 확인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주 5일 중 4일은 비자숲힐링센터에서, 1일은 환경보건센터에서 연구 등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휴직 기간 급여 지급에 대해서 “센터장이 자신의 수당을 포기하고 A팀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대체인력 경비로 내부결재를 마쳤다”고 했다.

양유리기자

“‘백조일손’의 역사 사라지지 않을것” 제76주기 첫알오름 예비검속 위령제 어제 봉행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예비검속으로 끌려가 목숨을 잃은 이들을 기리는 ‘제76주기 첫알오름 예비검속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19일 서귀포시 대정읍 백조일손묘역에서 봉행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주최하고 백조일손유족회와 첫알오름사건 행동유족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합동위령제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 김성범 국회의원, 임문철 4·3평화재단 이사장과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헌화·분향을 하며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예비검속 첫알오름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모습포경찰서 관내에서 344명의 주민을 예비검속하고, 그 중 군에 송치된 252명을 그 해 7월부터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법적 절차 없이 첫알오름

탄약고 터에서 집단학살해 암매장한 사건이다. 유족들은 1956년 5월 학살터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132명의 시신을 수습해 지금의 묘역에 함께 안장했다. 이 곳에 ‘서로 다른 132명의 조상들이 한 날, 한 시, 한 곳에서 죽어 뼈가 엉기어 하나가 됐으니 그 후손들은 이제 모두 한 자손’이라는 의미에서 백조일손(百祖一孫)이라는 묘비를 세웠다. 이날 위령제에서 고영우 백조일손유족회장은 “우리가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전하는 한 백조일손의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선조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굳건히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장미란을 찾습니다”… 애타는 실종자 가족

‘허위보고’ 논란 실종 사건 피해자 가족 최근 신상 공개
5월 13일 새벽 집 나선 이후 연락두절… 생활반응도 없어



경찰관의 허위보고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장미란(37)씨 실종사건과 관련해 가족이 신상과 인상착의 등을 공개하며 찾아 나섰다. >>사진 19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월 13일 새벽 1시 30분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거주지에서 외출한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장씨는 키 158cm의 마른 체형으로, 실종 당시 긴 생머리를 하고 금팔찌를 착용했다고 가족은 전했다. 집을 나설 때 장씨는 별다른 짐 없이 휴대전화만 챙기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동거인이 5월 15일 경찰에 최초 신고했다. 담당 경찰관이던 A경장은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으나 가족에게는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두 달 넘게 장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장씨 가족은 7월 재신고를 했다. 제수사가 이뤄지면서 최초 신고 당시 A경장이 장씨와 연락을 취했다는 보고가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장씨는 최초 실종 당시부터 현재까지 금융, 통신, 항공권과 배편 같은 이동기록 등 생활반응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쯤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하고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다. 한편 A경장은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으며 직위해제된 상태다.

양유리기자

제주 최초
청각학 박사 학위 취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청각학)

원장 강 동 우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 전문청능사 언어재활사
- 한국청능사협회 상임이사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운영이사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정회원

와이덱스보청기

강동우 청각센터

청각학 박사가 직접 상담하는 청각전문센터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관리로
더 잘 듣고, 더 편안한 일상을 함께합니다.

개인마다 다른 청력 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정확한 평가와 맞춤 상담,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여러분의 소중한 청력을 지켜드립니다.

청력 평가
난청 상담
보청기 상담
청능재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동우청각센터의 차별성

청각학 박사 직접 상담	체계적인 피팅 및 관리 시스템
최신 청력평가 장비 운영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신뢰
개인별 청취환경 분석	검증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다이소 옆

무료주차 가능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 1005

청각의 가치를 높여
더 나은 삶을 함께합니다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hearingjeju.com